

# 손명오가 찾던 와인은?… 칠레 프리미엄 대명사 ‘알마비바’



안 상 미 기자  
Why. wine 109

##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 와인

“폼..마디? 뭐야, X. ‘사우...비’ X발, 읽지도 못하겠네. 뭐가 제일 비싼거야?싼 거 먹으면 XX 억울한데.”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1에서 하도영의 ‘100만원짜리 와인을 마시는 법’이 회자됐다면 시즌2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손명오의 와인 이름 읽기가 압권이었다.

손명오는 문동은에게 지옥을 안겨준 가해자 중 한 명이다. 다른 가해자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면 금수저들에게 기생하는 흙수저 가해자다.

금수저들을 협박해 한 몫 단단히 챙길 공리를 하면서 자기가 모시던 전재준의 와인셀러도 탐하지만 잘 모르면 골라마시기도 어려운게 바로 와인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손명오가 폼마디라고 읽은 전재준의 와인 첫번째는 포마르(Pommard)다. 프랑스어는



‘더 글로리 시즌2’ 화면 캡처

마지막 자음은 보통 발음하지 않으니 그렇다.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으로 포마르는 와인이 생산된 마을 이름이다. 생산자는 루이자도, 뽀마르 마을에서도 클로 드 라 꼬마렌이라는 포도밭에서 자란 피노누아 품종 100%로 만들었다. 그랑 크뤼가 아닌 프리미에르 크뤼급으로 10만원대.

‘사우비’는 포도 품종 ‘Sauvignon’을 잘못 읽은 것. 와인에 따라 라벨에 품종이름이 가장 크게 써있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사우비는 철자 소리대로 읽었지만 ‘gnon’은 그렇게라도 하기 어려웠다. 사우비는 레

드와인에 쓰이는 카베네 소비뇽(Cabernet Sauvignon)과 화이트와인을 만드는 소비뇽 블랑(Sauvignon Blanc)이 있지만 무엇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전재준이 시즌1에서도 그렇고 마시는 모든 와인이었으니 카베네 소비뇽일 가능성이 높다.

전재준의 마지막 와인은 칠레 와인 알마비바다. 손명오가 와인병을 꺼내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면 정체를 알 수 없어 한숨만 쉬고 내려놓은 그 와인이다.

알마비바는 칠레 프리미엄 와인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유명한 와인이다. 샤토 무통 로칠드를 만드는 프랑스 와인명가 바론 필립 드

로칠드와 칠레 최대 와이너리인 콘차이토로가 손을 잡아 보르도 스타일로 만든 와인이다. 1998년 첫 출시와 함께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고, 30만원대의 비싼 가격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인기있는 와인이다.

손명오가 찾던 가장 비싼 와인은 알마비바인 셈.

그러나 손명오의 선택은 답답한 긴 한숨과 함께 ‘와인은 포기’였다. “그래, 모를 때는 안전빵이지.” 그나마 알고 있던 비싼 위스키 로얄샬루트는 결국 스스로를 해치는 무기가 되었다. 그림감이 덜 좋은 와인을 택했다면 드라마의 방향이 달라졌으려나.

시즌1과 2를 총체적으로 보면 전재준은 와인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와 품종, 그리고 가격까지 개의치 않는 개방적인 와인애호가다.

금수저 화가 이사라의 와인 취향은 샴페인. 페리에 주에 벨레포크다. 마시는 장면도 없이 한쪽 구석 탁자 위에 올려진 와인병만으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와인병에 화려하게 그려진 아네모네 꽃 디자인 덕분이다. 프랑스 샹파뉴에서 샤르도네 50%에 피노누아와 피노귀니에 등을 섞어 만들었다.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꽃향에 생기있는 산미와 부드러운 기포로 음식과 함께 마시기도 좋은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비움’으로 채워지는 삶의 미학

온라인 중고 장터를 구경하다 보면 ‘대체 저걸 누가 사거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최근에는 브릭 수천톤을 매물로 내놓은 판매자를 봤다. 다행히 킬로그램 단위로 팔고 있어서 사는 사람이 있긴 할 것 같아 보였다. (한꺼번에 팔면 안 팔릴 게 분명했을 양이긴 했다.) 판매자는 브릭을 좋아해 모으다가 양이 많아졌다고 했는데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필자가 스스로의 우둔함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엇그제 약 10개월 전 편당으로 구매한 브릭 세트 4개가 택배로 왔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딱 10초 기뻐했다. 그 뒤엔 한숨과 걱정뿐이었다. 거대한 상자들을 보면서 “아... 이 많은 걸 또 어디에 넣어 두어야 하나...”라고 한탄하다 브릭에 미친 건 저 자신이란 것을 알게 됐다.

이럴 때 읽으면 좋은 책이 하나 있다. 법정 스님이 쓴 ‘무소유’다. 어느 날 법정은 지인으로부터 난초 두 분을 분양받는다. 이후 스님의 삶은 달라졌다. 난초를 잘 키우기 위해 관련 서적을 구해다 읽고, 식물의 건강을 위해 비료를 주고, 여름에는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고, 겨울에는 다소 춥더라도 실내 온도를 낮춰 난초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법정은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라고 자조한다.

화창한 여름날, 스님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



#### 무소유

법정 지음/범우사

봉선사로 향한다. 그러다 문득 난초를 뜯어 내놓은 게 생각난 법정은 찬란한 햇빛을 원망스러워한다. 별이 뜨거워 축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온 스님은 그제야 자신이 난초에 너무 집착해 마음이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놀러 온 친구에게 난초를 안겨준 스님은 날아갈 듯 훌거운 해방감을 만끽한다.

법정은 “소유의 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인젠가 한번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라고 말한다.

159쪽. 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나는 신이다

나강평 지음/투니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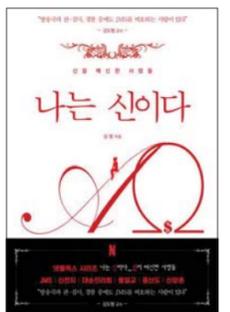
누군가가 밖에서 길을 물어보면 화가 난다. 목적지를 찾는 척하며 신상을 캐묻는 사이비 신도들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어쩌다 사이비가 판을 치게 됐을까.

책은 국내 사이비 종교의 뿌리를 파헤친다. 저자는 기독교 계통의 사이비

종교 교주가 어느 라인에 교적을 두고 배우다가 독립 후 개업했는지를 낱낱이 까발린다.

변질된 기독교 문화와 신비주의가 대한민국의 압적인 존재로 급부상한 배경을 설명하는 책.

216쪽. 1만5000원.



###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패트리샤 로버츠-밀러 지음/김선 옮김/헤데와소피

선동은 우리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대를 희생양 삼는 담론을 의미한다. 고대 그리스부터 지금까지 민주주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선동이 있었다. 선동의 수사학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현실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우리와 그들로 단순화시키기 때문이다.

선동가는 우리가 맞고 저들은 틀렸다고 말한다. 저자는 선동가를 몰아내는 일은 또다른 선동가를 만드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선동가를 허용하는 우리만의 선동 문화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다. 책은 선동을 구별하고 이에 맞설 방법을 제시한다. 144쪽. 1만4000원.



### 플레이밍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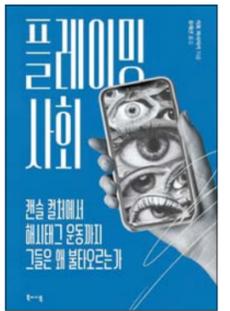
이토 마사아키 지음/유태선 옮김/북바이북

플레이밍 현상은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비난, 비방 등의 글이 빠르게 올라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책은 관심 받고 싶은 마음, 개인 사람이라는 의식, 소수자를 도우려는 마음 등 다양한 욕망과 갈등이 모여 플레이밍 사회를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플레이밍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충실하게 비추는 사회의 거울이라고 설명하며 이 현상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다룬다.

플레이밍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책.

220쪽. 1만7000원. /김현정 기자



##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김동연 “22일간 도청 압수수색, 법치라는 이름의 독재” /사진 뉴시스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재판 출석... “성실히 임하겠다”



▲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측 “롯데 불법 자문 혐의 부인...납득 안 돼” /사진 뉴시스  
▲ 범죄는 감고 수익금 인출 도와주고... 뇌물 받은 경찰, 재판행

▲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 “원하는 배상” 받겠다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 장애인 차별 소송 5년 만에 재개